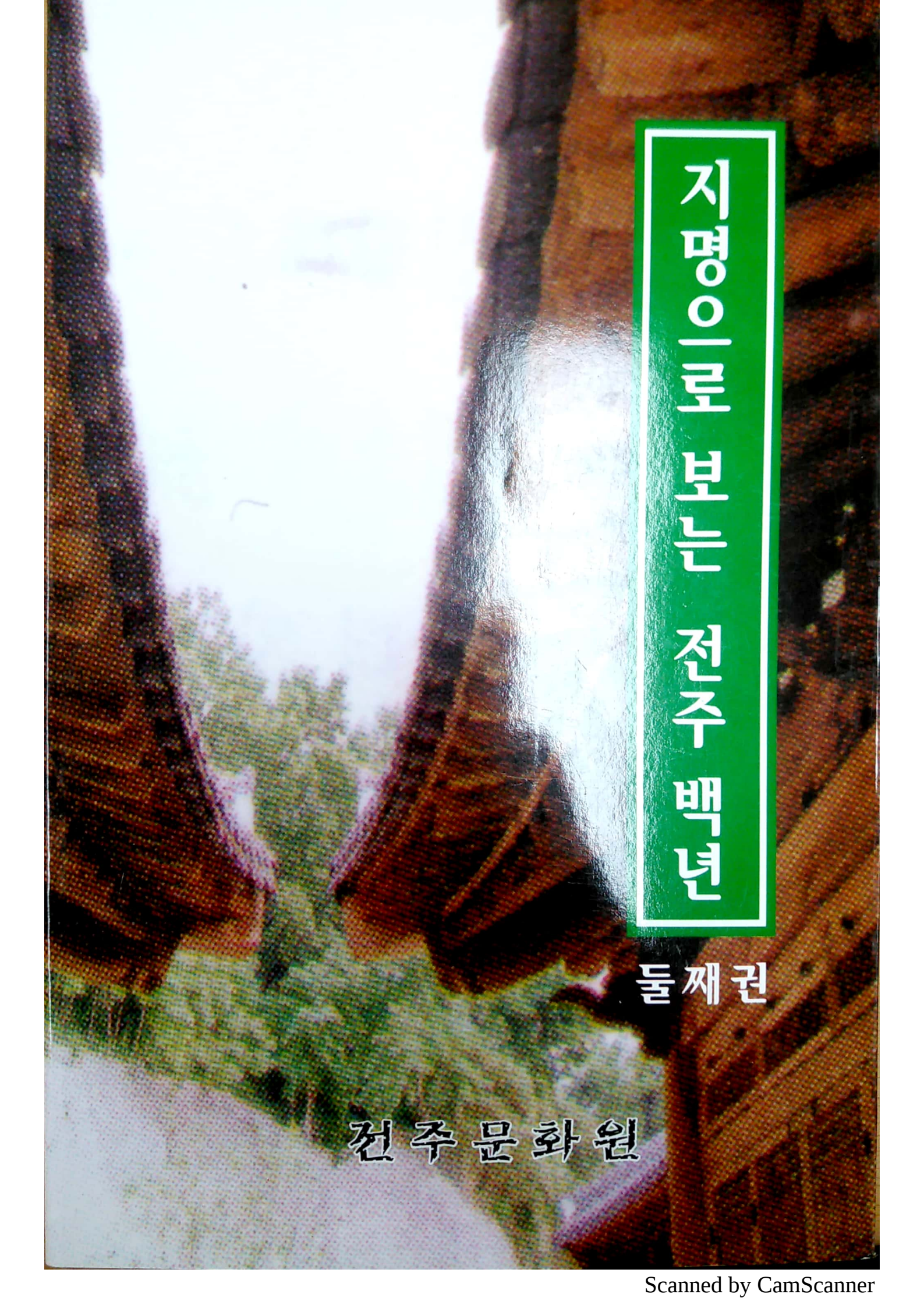




지명으로 보는 전주백년

둘째 권

전주문화원

지명으로 보는 전주 100년 둘째권

인 쇄 2002년 12월 18일

발 행 2002년 12월 20일

발 행 인 김 광 호

기획·편집 송 영 상

조사·집필 이 길 재

표지디자인 김 인 철

행 정 신 지 훈

인 쇄 인 이 현 경

발행 전주문화원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53 한안과빌딩 5층

전화 / (063) 288-7500 팩스 / (063) 288-7500

<http://www.jjmhy.or.kr>

E-mail : cjmhy7500@yahoo.co.kr

인쇄 도서출판 하나사

전화 / (063) 287-0644, 287-0640

등록 / 2002년 9월 26일

비매품 · 전주시 보조금을 받아 출판합니다.

■ 발간사 「우리는 왜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가」	4
----------------------------------	---

제1부 전주의 변화

1. 산세와 물길의 변화	13
가. 전주의 산	14
① 고덕산 자락	14
② 모악산 자락	16
③ 건지산 자락	21
④ 운장산 자락	23
나. 물길과 다리	24
① 삼천천과 가르내	24
② 소양천과 고산천	29
다. 들	31
① 난전뜰과 거마평	32
② 범바우평, 시내뜰, 마전뜰	34
③ 사두리뜰과 강녕뜰	35
④ 부아재뜰, 방죽받이, 신평뜰	36
⑤ 강구레뜰, 안뜰, 조세판, 싸리뜰	36
⑥ 구레뜰과 시내뜰	37
⑦ 쇠마니뜰과 철논뜰	38
2. 행정구역의 확장과 지명의 변화	38

가. 행정명칭의 변화	40
① 평화동	41
② 삼천동	42
③ 효자동	42
④ 팔복동	45
⑤ 송천동	46
⑥ 전미동	46
⑦ 호성동	47
⑧ 우아동	49

제2부 2차 조사 지역

1. 평화동	53
① 석불리	54
② 장천리	58
2. 삼천동	76
① 태평리	77
② 계용리	83
③ 안산리	93
3. 효자동	106
① 송정리	107

제 1 부 전주의 변화

② 효자리	110
③ 홍산리	120
4. 팔복동	135
① 신복리	136
② 동곡리	138
③ 유제리	148
5. 송천동	150
① 오송리	152
② 시천리	163
6. 전미동	174
① 전당리	174
② 미산리	185
7. 호성동	196
① 신성리	196
② 봉암리	211
③ 송전리	216
8. 우아동	223
① 아중리	224
② 석소리	245
③ 우방리	246

쌍용리(雙龍里)는 쌍룡동, 쌍룡동삼거리라고도 하는데, 지형이 용 두 마리가 있는 형국이며 앞에 세 갈래길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쌍룡동삼거리(雙龍洞三巨里)는 동쪽으로는 서원너머, 서쪽으로는 이동교를 지나 김제, 북쪽으로는 중화산동의 신촌이나 메너머 가는 길이 있었다. 쌍룡동 바로 동쪽에 인접해 있는 안행동(雁行洞)은 마을의 동쪽에 있는 산의 지형이 기러기 형국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안행동의 현재 위치는 완산구청 주변이다. 오두리는 행정구역상으로 오두리의 일부지역이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우림면 송정리에 편입되었을 뿐, 마을은 중화산동으로 편입되었다. 송정리 지역에는 안행방죽(雁行)과 오두리방죽(烏頭里) 두 개의 소류지가 있었다고 한다.

② 효자리

효자리는 우림교에서 효자리(전주박물관 앞)에 이르는 도로의 서북쪽과 천장봉의 동남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천장산은 남쪽으로는 삼천동의 닛금산으로 뻗어 내려 여러 산줄기를 이루고, 동남쪽으로는 두개의 산줄기를 뻗어 내린다. 두 산줄기는 한 줄기로 뻗어 내리다가 각각 두개의 산줄기로 갈라져 네 개의 산줄기를 이룬다.

용기봉은 북쪽으로 산줄기를 뺏어 내리다가 치솟아 여뢰봉을 이룬다. 천잠산 동남쪽의 4개의 산줄기가 이룬 골짜기들과 용기봉의 동북쪽 들녘에 효자리가 자리잡고 있다. 여뢰봉 주변에 사방으로 자리잡고 있는 여메, 예산, 안용수물, 뒷용수물은 효자동 3가에 속한 지역이다.

1914년 전주군 우림면 지역의 효자리, 호암리, 후록리, 구룡리, 초전리, 한절리와 신평리, 봉강리, 신주리, 용산리, 함대리의 각 일부와 이동면의 소산리 일부를 통합하여 효자리라 하였다. 1935년 효자리는 전주군이 전주부로 승격되면서, 우전면 효자리로 완주군에 편입되었다가 전주시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1957년 전주시에 편입되어 효자동 2가가 되었다.



〈사진 59〉 효자동 2가

쭉고개에서 전주 쪽으로 오다 보면 천잠산에서 남생이등까지 뻗어 내린 첫 산줄기의 끝자락에 자리잡은 마을이 효자리이다. 이 산줄기는 효자동과 삼천동의 경계가 된다. 효자리(孝子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장개남효자문(張凱男孝子門)이다. 효자 장개남은 인조 7년(1627)년에 정려를 받았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가 병들어 새 고기 먹기를 원하기에 하늘에 빌었더니 기러기 한 마리가 떨어지므로 구워서 드렸다고 하며, 기러기가 떨어진 곳이 천수배미 또는 기러기배미이다. 또 모친을 위하여 수박을 구하려 헤맸던 곳을 수박골이라고 한다. 송정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자기 몫의 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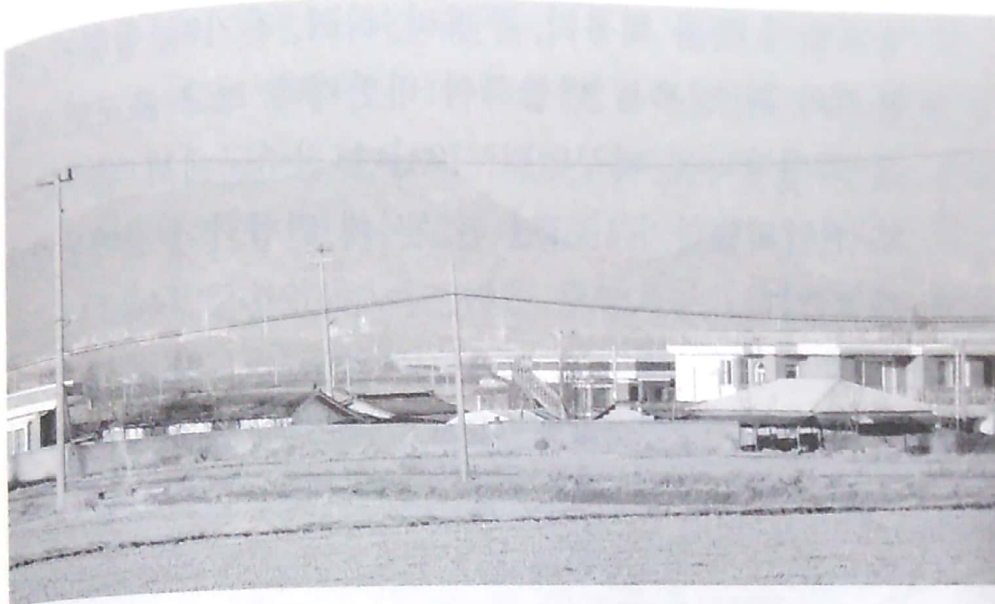


〈사진 60〉 효자리와 장개남 효자문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하여 집에 갖고 가려고 시내에 이르렀는데 우림교가 없었던 시절이라 냇물이 불어 건너지 못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물에 뛰어드니 그가 가는 길 앞으로 물이 갈라져 무사히 건넜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남생이등의 동북쪽 산줄기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는 전주박물관과 한절리가 자리잡고 있다. 천수배미는 한절리 앞, 전주박물관 뒤에 있는 논이다.

한절리(寒節里, 寒切里)는 박물관 동북쪽 산줄기의 남쪽자락에 자리잡고 있는데, 마을 주변에 800여년 전에 지었다는 한산사라는 절터가 있어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절리 앞에 남생이들에는 남생이바우가 있는데, 목이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예전에 시주승이 한절리에 시주를 하러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해꼬지를 하자 마을을 떠나면서 남생이바우의 목을 잘라 놓고 나간 후로 마을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절리 서쪽에 있는 작은 소류지가 한절방죽이다. 한절리 앞의 뜰은 남생이뜰이다. 삼천동 능안 마을의 한 제보자는 남생이바우를 거북바우로, 남생이등을 거북날로 알고 있었다. 한절리에서 큰길가로 내려오다 보면, 서북쪽으로 있는 조그만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는 효자 장개남이 수박을 찾아 헤맸다는 수박골이다.



〈사진 122〉 연봉내

② 미산리

미산리(美山, 微山)는 전미동 2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무근틀과 월곡을 제외하면, 삼례가는 옛길을 따라 자리잡고 있다. 송천동에서 전미동으로 들어오면 가장 처음 보이는 것이 미산 초등학교이다. 미산 초등학교 서쪽으로 월평, 회룡, 신촌 세 개의 마을이 있고, 이어서 주정리, 숨말, 신미산이 길가에 자리잡고 있다. 고산천과 가르내가 합쳐지는 합수번지 안쪽으로 무근틀과 새터, 미산 깊숙이 월곡 마을이 있다.

전주군 회포면 지역이었던 미산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회룡리, 주정리, 화리, 진기리, 월평리, 연봉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미산리라 하고 초포면으로 그 행정구역을 바꾸었다. 1935년 전주군에서 완주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57년 전주시에 편입되어 전미동 2가가 되었다.



〈사진 123〉 전미동 2가 항공사진(1989)

미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월평, 회룡, 신촌이 있는데, 마을이 커지면서 마을간의 경계가 없어졌다. 월평(月平)은 원래 건평이었다. 월평은 월평 북쪽에 있는 주정리

사람들이 이주해 와 마을을 이루고, 들에 마을을 세웠다는 의미로 건평(建平)이라고 했는데, 일제시대 때에 월평으로 마을 이름이 바뀌었다. 월평은 월평, 신촌, 회룡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다. 월평 다음으로 생긴 마을이 신촌인데, 예전에는 주막거리라 하였다가, 해방되고 나서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워 지게 되었다. 이 주막거리가 있어 소금장수들이 신촌에서 자고 소금을 팔러 여시골을 걸어서 진등을 넘어 진안이나 무주로 갔다고 한다.

그 전이는 소금장수가 군산서 소금을 짚어지고 여그(신촌) 와서 술을 먹고 자고, 진안하고 장수로 갔어. 주막거리에서 뻥뻥이 올라가. 비행장 쪽으로 올라가르는 여시골여. 거그는 사람이 많이 땡기서 질어. 십리는 되야, 산 속으로 가는 길 이. 그래서 진등여. 여시골이라는 디가 동네가 있었어. 도둑놈, 강도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어. 지금은 논이 되었지. 기왓장도 나오고 그러 어떤 때 보든.(유효근 남. 79)

시방 여 앞에 동네. 여기 있는 동네가 그전의 거시기여. 신계주막이여. 여기 신촌마을이 신계주막이여. 저 한양서 내려와 가지고 경상도로 넘어갈라든 그 질목(*길목)을 건너 가지고, 고산리라고 허거든. '고산리'라고 허는디, 산 있잖어. 거가 고산리¹³⁾여, 그렇게 해가지고 저 초포초등학교 있는데, 저기

13) 고산리는 완주군에 있는 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산리는 고살피라고도 하는데, 미산리의 월곡마을을 말한다. 전당리 주변에서는 가장 높은 산에 위치한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해가지고 저 진안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질이거든 이게.(조사자 : 길목이네요?) 그전에 등짐장사들이 전부 여그 와서 자고 갔어. 등짐장사들이. 여가 신계주막이여. 서울서 오는 등짐장사들이 전부 여가 와서 쉬어 갔거든.(전주설화, 2001)

여시골은 여수골이라고도 하는데, 여수골 막바지에서 송천동의 두간다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서낭댕이다. 지금은 비행장이 있어서, 비행장 주변을 빙 돌아서 월평으로 길이 나 있다.

제일 마지막으로 생긴 마을이 회룡(回龍)이다. 아래 사진은 가르내에서 바라본 월평, 회룡, 신촌의 모습이다.

회룡에서 고내 쪽으로 있는 들은 방죽밭이다. 방죽밭이는 백석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서부뜰 물을 사용한다. 신촌의 서북쪽들은 싸리뜰인데, 쌀이 많이 나서 붙여진



〈사진 124〉 월평, 회룡, 신촌 마을

이름이라고 한다. 싸리뜰에 있는 논들은 ‘잘 되도 그만, 못 되도 그만’이라서 구마니논이라’고 한다. ‘언제든지 잘 된게, 못된 때가 없어 그런게 구마니여.’ 강석논도 있었는데, ‘일허다가 취서 얼어죽은 자리여. 강석이 나서 죽었어. 그래서 강석논’이라고 한다.

회룡에서 주정리 무근뜰에 이르는 들이 조세판이다. 조세판을 파면 검은흙이 나오는데, 그 흙이 조세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미산초등학교에서 삼례 쪽으로 올라가면 도로 남쪽에 있는 마을이 주정리이다. 주정리(舟停里)는 지형이 배의 형국, 또는 배가 머물러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주정리 주변에 한 50여평 되는 땅이 배의 형국인데, 경지정리 되기 전에는 그 땅에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 두었다고 한다. 경지정리를 하기 전 마을의 서쪽에 밭이 있었는데, 그곳이 잣뜸이다. 주정리에서 동쪽으로 바라 보이는 마을이 숨멀이다.

숨멀은 옛날에 바다였고, 지금도 샘을 파서 물을 먹어 보면 짜다고 한다. 숨멀은 ‘섬’에 마을을 나타내는 ‘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다시 말해서, 섬 마을이라는 뜻이다. 숨멀은 화리(禾里)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정 때 왜식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일본인들이 ‘벼가 많다’ 해서 화리라고 했다고 한다.